

경인 생활



제4분 예배광경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

'77 3월호

하나님의 아들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니,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까닭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성경/마태복음 3:13-17)

김 창 인 목사(당회장)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3년간 공생활에 들어가신 예수님처럼 물세례를 받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옵신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면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천국백성인 우리들은 세례를 받아 하늘나라 백성의 주민등록증을 얻어야겠습니다.

세례의 뜻

그러면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잠기운다」 「들러싼다」란 뜻 외에 세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성부·성자·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이 사람은 죄악에서 용서받은 천국의 백성이 된 시민증을 주는 예식입니다.

둘째, 성령세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물세례 받기 전에 베푸는 때도 있고, 물세례 받을 때 함께 받는 사람도 있고, 물세례 받은 얼마 후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셋째, 예수 믿는 사람과는 상관없는 저옥 불세례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땅을 밟고 공기를 숨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의인 줄 알고 도 거절하여 악마에 끌려 살던 사람들이 세상 떠나는 날 저옥불에 잠기우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선민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 법계를 메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니,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까닭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무한히 겸손한 분으로 남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일단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나신 예수님은 사람이 행하는 법을 자기도 똑같이 행함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법은 아랫사람은 지키고 윗사람은 밟아버리기 쉽습니다. 거짓말 말라는 부모가 거짓말을 사업의 기술로 삼고, 모든 백성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장관 자신은 교통질서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윗사람이 먼저 법을 지키고 실천하며 아랫사람에게

법을 가르칠 때 그 가정과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둘째, 공적 생활을 출발하시는 예식으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생활 30년을 지난 후 복음을 증거하는 공적 생활을 출발하실 때에 인간들이 거쳐야 하는 세례의 문을 통하시어 공적 복음사업에 첫 발걸음을 뒀으셨습니다. 마치 남녀가 결혼 전에 만날 수는 있으나 동거 생활은 아니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법을 지키는 공적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셋째,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당한 세례였다는 것을 자손 만대에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자들이 세례받아야 할 이유

그러면 예수님만을 나의 생활에 주인으로, 더 나아가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신자들이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제자의 발걸음을 시작 했다는 증거입니다.(마 28장) 만일 예수님이 받으라 하신 세례를 안받으면 예수님을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는 업신여기는 교만이 됩니다.

둘째,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천국백성이 되었다는 시민증 교부를 받는 것입니다.

셋째, 세례를 받는다 함은 그리스도의 몸 되신 땅 위의 교회에서 정당한 신자가 되어 성찬예식에 참석하고 집사로서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 일할 수 있는 교인의 권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째, 어리석고 어두운 길에서 해마다 예수님의 구원으로 예수님과 같이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함께 받아 생각과 말이 지혜로와지고 생활이 담대하고 죽음에 대하여 겁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마침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중현의 여러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세례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할 일 많은 이 땅에서 세례를 받고 각자 남은 여생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언제 어느 곳에서 죽더라도 천국가는 증거를 보이고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3월의 행사

- 6일 / 제직회 · 남전도회임원회 · 권사회임원회 · 월간총
현편집위원회 · 재정위원회 · 건축위실무자회
13일 / 남전도회월례회 · 권사회월례회 · 여전도회임원회
· 청년부원신애배
14일 / 기업인수련회 및 산업전도회월례회
20일 / 여전도회월례회 · 재정위원회 · 해외선교실행위원
회
21일 / 교육위원회
21~22일 / 학습 세례문답 교육
27일 / 구역권찰회 · 전도위원회 · 중등부원신애배 ·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회(여의도광장)
29일 / 정기당회
31일 / 춘기 학습세례문답

3월호 차례

- <말씀> 새해를 받으신 예수님 / 김창인 목사.....2
<권두언> 3·1운동의 새 의미 / 주간.....4
<이달의 글> 그리스도를 본받아.....5
<특집 : 성도와 교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성도는 그 지체
 / 정상우 목사.....6
 성도는 한몸된 교회의 지체
 / 백성룡 목사.....8
 교회전통의 기능과 내용 / 편집부10
<특별기획연재 ②> 미래의 흥현주교 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 최정만.....12
<순교사화 ⑤> 순직자-길선주 목사
 / 이정웅 전도사.....14
<이단종교비판 ②> 이단종교란 무엇인가
 / 윤형철 전도사.....15
<홍해지역트보 ②> 꼭 이루어질 확신을 안고
 / 최명옥.....16
<도서정보>.....19
<책소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 안영자.....19
<찬송가해설> 내 너를 위하여20
<1200자 칼럼> 자기애(自己愛) / 김인숙.....20
<구역장노우트 ④> 신앙지도의 지침 ⑥
 / 백성룡 목사.....21
<구역소식>.....21
<뉴스>.....22
<편집자에게 온 편지>.....25
<기자석 · 편집후기 · 표지설명>.....26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27
<시> 아침기도 / 김남조.....28

우리의 신조

우리는 보수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삼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 (3)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민족의 복음화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안디옥교회가 된다.

월간 흥현

김 창 인 목사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

이 복음의 외침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들으며 은혜 받으십시오

아세아방송(1570kHz)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45분부터

3.1 운동의 새 의의

기미 3·1 독립선언 58주년을 맞았다. 3·1절은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결의 권리를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파시한 역사적인 날이다. 그러기에 반세기가 훨씬 넘어선 오늘에도 3·1운동의 의미는 더욱 새롭기만 하다.

우리가 독립선언문을 자세히 읽어 본다면 그 얼마나 고매한 기독교 이상주의가 깃들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글이 명문(名文)이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정황을 여실히 나타낸 점이라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게도 억울한 굴욕을 당하면서도 제국주의 일본민족을 미워하는 따위의 글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라든가 절망 가운데서도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굳세게 인내와 너그름으로 현실을 이겨내려는 이 공지는 과연 한국민족이 아니고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기가 아니라 할 수 없다.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곧 3·1운동의 연장이며 결과요 성취였던 것이다. 무저항의 3·1정신은 기독교 정신과 일치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정신이 중심이 된 3·1운동 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원치 않는 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을 그러한 기회에 주신 것이라 하겠다.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 든든한 일인가.

여하튼 3·1운동을 통해서 확실히 알려진 귀결은 참된 성도는 애국애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진정한 애국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민족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달가이 받겠다고 하였던 것이다. 구약의 모세와 에레미야 그리고 위대한 성도들이 다 열렬한 애국지사였다는 사실이다. 크리스찬의 생활은 무엇보다도 애국하는 일에 열중하여야 한다. 그런데 요즘 듣기로는 해외에로 보따리 싸가지고 혼자만 살겠다고 전쟁의 위험을 피해 달아난(이민) 종교인들 가운데 대한(對韓) 원조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기 위해 데모와 서명운동을 하고 나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돌리고 있다. 얼마나 한가롭고 풍요한 생활을 하기에 이런 물지각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과연 그네들이 내 동족과 조국을 위한 일이 그것뿐일까? 피와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나라를 지켜온 순국선열들에 대한 모독도 되려니와 기독교사상에서 일어났던 3·1정신에도 크게 위배될뿐 아니라 애국애족을 교훈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으리라.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민족지상주의나 국수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3·1운동의 새 의의를 논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를 드나들며 성경(聖經)하는 것으로 만족을 삼을 것이 아니라 억울함과 도탄 가운데서 울며 탄식하는 이들의 들리지 않는 합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앞날을 염려함이 없이 개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결코 3·1운동의 정신이 아닐 것이다. 나 한 사람이 「작은 나」라면 국가와 민족은 「큰 나」인 것이다. 「큰 나」를 떠나서 「작은 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큰 나」를 살리는 「작은 나」로 쓰여질 때 가장 삶의 보람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큰 나」와 「작은 나」가 혼연일체되게 마련이고 그제서야 완전한 하나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 3·1정신의 새 의의가 아닐까.

〈주간〉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요 8 : 12)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참으로 밝은 빛의 생활을 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흑암에서(막 3 : 5) 농임을 받는 자유를 가지려고 하면, 예수님 자신의 생활과 그 걸으신 길을 본받으라고 권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이 세상 다른 성인(聖人)들의 교훈보다도 훨씬 뛰어난 교훈이며 누구나 그의 성령을 가지는 자는 감취어 있는 하늘 만나(계 2 : 17)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롬 8 : 9). 누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려는 사람은 그의 전생활을 그리스도에게 조화시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겸손의 덕을 가지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삼위를 기쁘게 못한 다면, 삼위일체론을 학문적으로 토론함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교만한 말은 사람을 의롭게도 거룩하게도 못하나, 선한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뭍(寵愛)을 받게 합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이냐 하는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나는 오히려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모든 철학자들의 교훈을 모조리 외운다고 해도 만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모든 지식이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만을 섬기는 일 이외에는(신 6 : 13)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나이다”(전 1 : 2). 우리의 가장 높은 지식이란 이 세상을 멸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듬어 그 나라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영예를 찾아 헤매고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 세우려는 것은 헛된 일이며,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종처럼 매여서 필경에는 반드시 어떤 보응을 가져오고 마는 물질을 탐해 애쓰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오래만 살면 좋다 하여 장수(長壽)만을 구하고 선한 생활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다만 이 땅위의 생명만을 생각하고 장차 올 영원한 생명에 무관심하고 있음이 또한 얼마나 헛된 일인 줄 당신은 아십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말 것만을 사랑하려 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지 못함이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한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사랑하려는 데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 보이지 않는 곳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 하고 싶은 자연의 경향만을 따라갈 때 그것은 우리 양심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 경건한 생활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토마스 아 켈피스(Thomas A Kempis)의 「그리스도를 본받아」(The Imitation of Christ) 중에서 뽑은 글입니다. <편집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성도는 그 지체

정 상 우 목사

<부목사·교육위원장>

- ◇..... 교회는 성도의 신앙에서 불가결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
- ◇.....인가를 바로 알며, 교회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며, 교회생활에 충실하다는 것.....◇
- ◇.....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제 「교회가 무.....◇
- ◇.....엇인가」를 성경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로 한다.◇

■ 교회의 본질

1.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골 2:9, 10)

흔히 사람들은 교회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물(교회당)인 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충현교회」 하면 충무로 5가 3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당 건물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 「충현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다. 이 건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충현교회」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 건물이나 건물 안에서 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교회」의 원어[헬라어]는 「에클레시아」인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도자의 부름을 받아 공적인 장소에 나온 「신자들의 모임」을 가리켰으나 신약성경에서는 이 용어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붙이고 있으니,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 받은 구약교회(행 7:38)였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이스라엘(갈 3:29)」로서 신약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16절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창 6:4-

7)에 의해서 된 것처럼 신약의 「새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스도 안에서 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Calvin)은 특히 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관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선택(secret selection)」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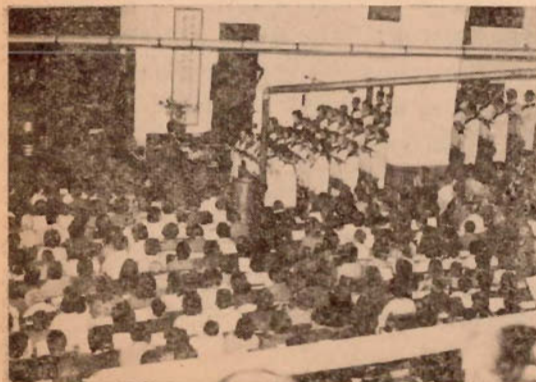
이와같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개념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성과 하나님께 대한 교회의 전적인 의뢰와 충성의 의무를 가르쳐 주는 동시에 이 선택에 근거한 교회관을 믿는 자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2.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엡 1:23; 골 1:18; 롬12:4; 고전 12:27).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머리」와 「몸」에 비유해서 교회의 본질을 말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이 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의 성전개념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좋다. 그것은 구약의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모형이었기 때문이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장소였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셨으며 이스라엘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여기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며 제사장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제물을 바쳤다. 또한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를 지속하며 유지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구약의 성전은 이러한 본래 목적을 완성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곳이기 보다 오히려 그 만나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장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같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심판의 태도로 책망하셨고(마 21:13) 이같은 성전이 장차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다(마 24:2).

그러면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로 돌아갔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성전으로 대체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뜨게 하시는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 권위를 보이기 위한 표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에 일으키리라(요 2:19)」고 하셨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들 앞에 서있는 돌로 웅장하게 세워진 성전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시켰다(요 2:21, 22).

예수님은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돌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몸인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성전은 죽음으로 파괴되었다가 부활로 다시 세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을 만나시게 된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피 많은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가 맺어지며 유지되게 된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진리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고전 3:16; 엡 2:21; 딤후 3:15; 히 10:21)이라는 개념은 피차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적인 면에서 서로 같은 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개념은 우리들에게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체성(엡 1:23)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유기적인 통일성을 가르쳐 준다. 칼빈(J. Calvin)은 이같은 지체 개념에서 성도의 교제와 질서를 강조했던 것이다.

■ 교회의 특징

교회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을 생각할 때 여기에 따르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니게야신조」가 강조한 교회의 네가지 특징[속성]이 있다.

1. 교회는 하나다——통일성

교회의 통일성은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뜻한다(엡 4:5-6).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 우리 몸에 여러가지 지체가 있어 각기 서로 다른 것 같으나 몸은 하나인 것처럼 이 땅위에 많은 교회가 있으며 서로 다른 점이 있으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오직 하나이다(롬 12:5; 고전 12:12, 13; 엡 1:22).

2. 교회는 거룩하다——성결성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모이는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현실교회가 결코 흠이 없거나 깨끗한 것이 아니다. 많은 부족이 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



〈필 자〉

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게[중생]하시고, 성령의 감화로 거룩[성화]하게 될 수 있게 하심으로 거룩한 것이다. 이런 뜻에서 교회는 「백합밭은 축축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게 된다(벧전 2:9). 그리고 교회는 세속화되지 않도록 이 거룩함을 보존하며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교회는 보편적이다——보편성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말은 모든 인종과 모든 사회계급이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때나 어디서나 같은 본질과 목적과 같은 형태를 가지는 공동교회(갈 3:28; 골 1:19-20; 3:11)라는 말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형 교회에 적용된다.

현실교회는 여러가지 차별과 제한을 가진 교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의 천국에서는 이 보편성(계 7:9)이 충분히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유형교회에 있어서의 보편성이 가톨릭교회처럼 기구적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게 전하며 어떤 사람이든지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 교회에 받아들이는 의무이행에서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나라와 인종의 차별이란 있을 수 없다(갈 3:11).

4. 교회는 사도적이다——사도성

교회가 사도적이란 것은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엡 2:20), 예수님의 복음을 간직하고 그 복음을 후세에게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믿음의 내용은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부탁받은 태도의 복음이어야 하며 사도들이 가르쳐 준 믿음의 내용과 그들이 건설한 교회의 제도를 그대로 간직하며 후세에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인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을 늘 중요시 하면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며 우리는 오늘날의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풍성한 삶을 우리와 우리 후손이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

성도는 한몸된 교회의 지체

백 성 룡 목사

<부목사·구역권람회장>

- ◇... 교회의 조직은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구속의 은총 속에 그리스도의...
- ◇...사랑으로 성도간에 서로 교통하는 데 교회의 본질이 있으며 조직은 이같은 성도들...
- ◇...의 교통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다. 교회의 조직이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통을 공...
- ◇...고려 하며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수행함에 소요되는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 ◇...수 있는 기능이 되기 때문이다. 이 조직활동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조정될 때만...
- ◇...교회의 성결과 기능이 보존되고 인위적인 부패와 축소가 방지된다.

□ 교회조직의 성경적 원리와 그에 부여된 의미

하나님은 점진적 계시에 따라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로 그 조직의 진보성을 보여주셨다. 또한 현재도 성령의 지속적인 조명 아래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진리에 따라 구원의 진리를 보수하는 기초 위에 이룩되어 가는 하나님나라의 확장과 함께 교회조직은 진보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이다(마 13장).

구약교회의 시작은 아담의 범죄 후 구속의 약속을 주신 날부터이며, 신약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부터이다. 즉 양을 잡아 제사하는 일에 할례를 행하는 일을 더했고 그후 레위인들의 성전에서의 봉사와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 등이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 종결되고 오순절 이후 사도들에 의하여 확실히 교회관을 밝히도록 계시하셨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제자들을 몇개의 조(組)로 편성하여 각각 임무를 맡긴 것으로 보이며, 바울 서신에서 교회의 조직은 확실하게 명시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무교회주의자들의 그릇된 견해와는 달리 행위의 유형적인 교회의 조직을 계속 존속시키실 것을 확신하게 한다(엡 1:23; 4:11-16).

그러나 교회조직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전제주의식으로 교회를 조직하고 성도들에게 교회조직

에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형적 교회조직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교회의 본질에서 떠난 비성경적인 교회조직이 되어버린다.

교회조직에 부여된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의 재현에 있는 것이다. 어떤 특정인물을 마치 그리스도처럼 추앙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이며 우상이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하고 성도들의 참된 신앙고백 위에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된 본분을 인식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데 교회조직의 뜻이 있다.

□ 교회조직의 문제들

이 땅위에 완전한 조직이란 없으며 유형적 교회조직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교회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언제나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 위에서 진리를 보수하여야 한다는 것과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1)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며 행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적은 교회와 달리 큰 교회가 많은 교역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조직이 방대하므로 조직의 각 부문별 기능에 따라 교역자들의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교역자들의 받은 은사에 따라 적체적소에 교역자가 배치되고, 견제나 경쟁이 아닌 훌륭한 협동목회가 이루어질 때 교회조직 속에 말씀이 바로 전달되며 말씀의 표현인 조직활동의 능률이 향상될 것이다.

(2) 교회의 치리권이 잘 행사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헌법에 따라 교회조직에는 장로가 있다. 장로는 교회조직상의 결함을 메꾸어 나가게 된다. 즉 목사와 장로가 그에게 부여된 감독권을 올바르게 행사함으로써 교회조직은 그 본질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인수가 많으면 그에 비례하여 장로의 수가 많아야 하는데 대다수의 큰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3) 성도간의 교제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각 지회의 활동이 원만한 가운데 각자의 유익으로 참여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즉 어린아기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도전체가 맥이 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연령별·직업별 등으로 지회를 조직하



여 그들끼리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한다. 이러한 교제는 성경공부·전도사업·기도회·수양회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제층의 합동적 성도교제는 구역별활동에 기대된다. 구역예배나 구역활동의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훨씬 효과적이다.

(4) 교회조직의 관리업무에 관한 실제적인 기술문제이다. 인사·교육·재정·시설 등의 조직의 관리나 행정은 담당자의 개인적인 기능에 좌우되기 때문에 누구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자의 확보가 크게 문제된다. 기능면에서도 우수하고 공명정대하며 사심없이 맡은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실무자를 확보하는 길은 그러한 소질을 가진 성도를 발견하여 일꾼으로 키우는 것이다. 우리교회는 현재 이 작업에 착수하였고 불원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또한 교회조직의 능률향상 문제에 있어 항상 목사나 장로의 지도 아래 이루어짐으로써 교회의 세속화를 막고 조직자체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확인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교회조직 속의 성도의 바른 자세와 임무

주님의 몸된 한 지체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분수에 넘치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 만일 조직의 일원인 성도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지켜야 할 위치를 이탈하면 교회조직의 기능은 대단히 약화된다. 이와같이 각각의 성도다 교회조직에서 자기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바로 지킬 때 자신도 유익되고 또 교회 전체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먼저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가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며 성도는 사랑의 질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우애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는 조직을 방편으로 하여 단결과 성장을 이루는 바 이것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선교사업을 성취함에 자체번식의 큰 방편이다”라고 A·하지가 말하듯이 우리는 교회조직의 힘의 분산을 저지하고 단결과 성장과 번식으로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힘을 바쳐야겠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방법은 쉽다. 그러나



〈필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려운 것이다. 이는 「육체가 영적 진보의 매 발자국마다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참된 성도의 생활은 헌신의 생활이며 자기 구원에만 만족하고 신비로운 은혜의 체험에 도취되어 이것이 성도의 생활의 전부인양 생각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주의 자요 벗들과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한 자와 다를 바 없는 게으른 자이다. 영리한 사람처럼 보이는 바보가 있고 바보처럼 보이는 지혜자가 있다고 했는데, 교회 일에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 사람치고 진실된 일꾼이 적고 가장 현명한 것 같으나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머리로 한 몸 이론 교회의 성도는 교회의 모든 일에 시간·물질·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쏟아 바치고자 결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화평이 있고 지력이 풍부하여 선교사업을 감당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조금도 힘들지 않게 된다.

또한 무한히 성장하며 발전하며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은 성도 한사람 한사람 앞에 간직된 은사의 집합이라고 생각할 때 성도중 하나인 나 자신의 영육의 성장은 교회 부흥과 발전에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먼저 교회 조직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어 각 성도가 자기 달란트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유행의 조직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성경적이며 교회는 땅 끝까지 복음을 확장해야 하는 사명이 부여되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루어진 교회 조직체는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사람 한사람이 중요하며 기구가 아닌 기관으로서 서로 한몸처럼 유기체로서의 상호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 헌신할 때 이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더우기 대교회로 성장해 가는 우리교회는 교회조직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많은 문제들을 깊이 생각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다. 그러나 증원교회의 모든 성도가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헌신하며, 충성을 한다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당면한 성전건축사업과 선교사업도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



교회건물의 기능과 내용

편 집 부

- ◇...『교회건물은 곧 우리들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말처럼 훌륭한 교회건물을 건...◇
- ◇...축하는 일은 우리들의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다. 기능과 조화를 위주로 하는 일...◇
- ◇...반 건축물과는 달리 교회건축물은 기능과 조화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 ◇...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전은 성도들의 단순한 예배처소...◇
- ◇...요 집회장소라는 장소적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물이다. ...◇
- ◇...그러므로 이같이 중요한 성전 건축사업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바로 우리에게...◇
- ◇...위임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영광이다. 평생 성전건축을 열망하였지만 기회를 허락...◇
- ◇...받지 못한 다윗을 생각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 ◇...따라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겠다. ...◇

교회건물의 의미와 기능

눈으로 보이는 교회건물이 곧 교회는 아니다. 교회건물이 교회의 일부가 되기 위하여는 교회의 목적을 위하여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현대교회가 예배의식 이상을 위해 건물을 짓는 이유로 바로 이 도구로서의 건물의 정신적·물질적 유용성을 확대시키려는 것이다. 즉 교회건물이 장소적으로는 예배·교육·전도라는 교회의 주된 활동을 가장 능률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시간적으로는 현재의 우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교회건물의 일반적인 평가기준을 다음의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① 유용성—건물은 쓸모있고 편리해야 한다. 건물의 모든 구조는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계획되어야 한다.

② 조화성—여러개의 단위건물은 대지와 환경에 맞도록 계획·배치되어 총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분열된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③ 신축성—건물의 구조는 또한 신축성을 가지고 교회의 목적과 이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돈이 투자된 건물이 단지 한두가지 기능만을 갖게 하지 말고 교회의 여러가지 기능과 변화에 적응될 수 있도록 신축성있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④ 아름다움—기발한 것에 호소하려는 생각을 물리치고 기독교정신을 진실하게 나타내고 계속되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려는 신앙에 의지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 아름다운 장식이나 꾸밈보다 단순한 아름다움이어야 한다.

⑤ 진리성—교회건물은 유용성이나 아름다움보다 진리성을 더 유지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진실한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건물의 내용

복음의 세계적 확장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현하기 위한 신약교회는 선교적 교회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건물을 예배공간·교육공간·전도와 봉사공간·기타공간 등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예배를 위한 공간—예배를 위한 공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곳이 되어야 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의식의 장소인 제단, 계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가대석, 예배에 참여한 회중성 등으로 이루어진다. 예배의식을 행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므로 거룩해야 할 것이며 모인 회중도 세속적인 육신을 잊고 영적 인간이 참성한 엄숙한 분위기에 도달할 수 있는 내부공간의 처리가 요구된다. 또한 소예배를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야 한다.

② 교육을 위한 공간—이 공간은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교인을 천국일꾼으로 키우며 훈련시키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교육공간 가운데 특히 주일학교는 교육공간의 주축을 이루며 예배공간과 구분하여 별동(別棟)의 교실들을 배치한 분리형이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나 예배공간을 유지하는 데 합리적이다. 교육공간의 크기는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장차 주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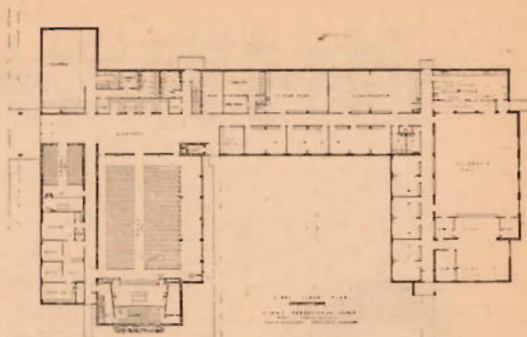
생수의 증가를 예상하여 계획시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든가, 증축에 대한 대지 및 구조물의 변형 등을 고려해 두어야 한다. 내부구조는 영아·유년·청소년·청장년·노년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학령에 알맞도록 꾸미고 강당·도서관·시청각실·교재실·교육자료실 등을 갖추고 특별히 교사들을 위한 장소와 시설에 혁신적인 투자가 요청된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옥외공간으로 놀이터와 정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③ 전도를 위한 공간—예배와 교육 공간이 곧 전도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전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교회 전도활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전도자료 및 정보제공처가 될은 물론 전도사업의 전략수립의 조종선 역할을 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전도자를 훈련하기 위한 전도훈련장으로 사용하게 된다.

④ 봉사활동 위한 공간—항상 개방된 휴게실과 담소실을 마련하여 교회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이 휴식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한 간단한 응급치료와 안정실을 둔 의료시설을 두고 교회에 적을 둔 의사들이 주마다 정해진 시간에 잠깐씩 돌보아 주도록 한다. 이러한 가운데 전도를 하며 교회로 이끌어 교회 주변을 완전 복음화시킨다.

⑤ 성도의 교제와 친교를 위한 공간—정기적인 공의회나 강연회 또는 비공식적인 친교회 모임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특별히 식당과 같은 장소를 신속성있게 설계하여 필요에 따라 변화있게 사용할 수 있다면 훌륭한 친교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모든 건물의 현관이나 라운지 등의 공간을 여유있게 하면 그곳이 또한 훌륭한 교제의 공간이 될 수도 있으며 옥외공간에 벤취를 놓고 도로의 면을 넓혀 친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교회 전체 공간이 성도의 교제장소가 되도록 배려한다.

⑥ 교회행정과 도서출판을 위한 공간—교회행정은 현대교회의 중요한 부분이다. 교회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려면 행정적인 서비스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행정을 위한 공간에 무관심한데 이는 결국 교회전체가 큰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능률과 신속성이 가장 요구되는 공간인 만큼 현대문명의 이기(利器)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학화된 시설과 장비가 뒤따라야 한다.

도서출판을 위한 공간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 발행되는 각종 인쇄물을 일괄처리할 수 있는 공간과 각종 자료의 수집·보관장소는 물론 신문·라디오 시설을 위한 장소에 장차 교회내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시설공간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행정과 도서출판을 위한 공간에 교회 내 전자장치 중앙통제실을 위한 공간을 병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⑦ 교역자들을 위한 공간—고급 지휘관이라고 볼 수 있는 교역자를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교역자들이 휴식을 취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성도와외 신앙상담실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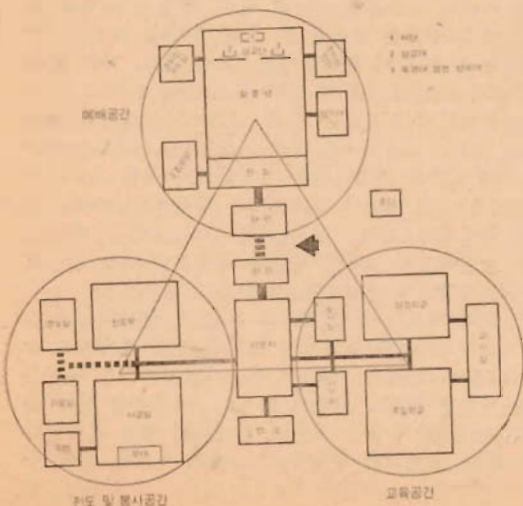
⑧ 기타 환경조성 및 시설을 위한 공간—개인기도실 결혼식과 장례식을 위한 시설, 주차시설, 주방 냉난방 및 환기시설, 교회건물 관리인을 위한 시설과 교회내 중치조성등이 있으며 특히 조명과 음향관계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맺음말

건축위원회가 구성되며 교회건축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한 교회는 우리가 계획하여야 하며 건축가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건축가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교회건물을 원하고 있으며 건물을 사용할 우리의 실태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고도 상세히 알려주고 협력을 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건축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와 지역사회에 대한 상세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 상당한 근거 위에 건축설계가 이뤄져야 하리라 본다.

또한 필요하다면 설계도가 확정되기 전에 교인 전체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교인들에게 설계 개요를 설명하여 성전 건축사업의 실제적인 어려운 점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온 교회적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보아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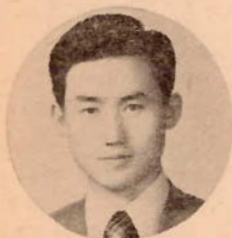
※ 참고문헌 : 현대교회건축계획 / 크리스찬해럴드사 발행. (*)



미래의 충현주교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최 정 만

<대학부 교사>



<필자>

○……오늘날과 같은 주일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89년전 일이다 우리교회 주일학교가 시작된 것은 1953년이……○
○……니가 올해로 24년째가 된다. 89년이라는 우리나라 주일학교……○
○……역사에 비해 24년이라는 우리교회 주일학교 역사가 결코 짧……○
○……은 것은 아니다. 24년전 우리교회 주일학교가 처음 문을 열……○
○……때에는 불과 100명 내외이던 학생수가 지금 2,500여명이 되……○
○……었다. ……○
○……이처럼 우리교회 주일학교는 양적인 급팽창일변도를 달려왔……○
○……다. 이같이 발전해 온 우리교회 주일학교의 미래를 겨냥하며……○
○……함께 생각하여 보고자 이 난을 마련했다. <편집자> ……○

<목 차>

1. (서언) 미래를 향한 충현주일학교의 위치정립을 위하여
2. 주일학교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
4. 주일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 및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을 위하여
 - (1) 신학적 원리 (2) 역사적 원리
 - (3) 철학적 원리 (4) 교육학적 원리
5. (결언) 바람직한 교회교육으로의 제언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세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여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문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 6:4-9)

1. 미래를 향한 충현주일학교의 위치정립을 위하여

세계 각국을 두루 여행하고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가 아마 한국일 거라고 한다. 대단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비록 눈물겹게 살아가더라도 자라는 제2세의 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치루고라도 감수하는 것이 한국의 교육 현실이다.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현재에 살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미래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지도 모르겠다. 요즘 학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문 중의 하나가 미래를 연구하는 「미래학」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친구악의 성서는 어떠한 권위있는 미래학의 연구서보다도 더 정확무오한 미래학의 결정판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불안과 긴장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은 과거의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현대인은 자신만을 생각할 수 없고 현재만을 생각할 수 없는 무거운 미래적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너무 치중하여 관심을 가짐으로써 현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기가 쉽다. 우리 한국의 과잉된 교육열은 수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이즈음, 우리는 이제 한걸음 물러서서 냉정히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비판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를 지 안디옥교회의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배워야겠다. 용기만으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 용기가 만용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좀더 찬찬히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의미를 음미하며 「제3의 에루살렘교회」로 충현교회의 미래를 향한 용비(雄飛)를 위해 우리는 이제부터 머릿돌을 놓을 심적자세를 가다듬어야 하겠다.

「천국일꾼 기르는」 일은 곧 승천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이기도 하지만 과연 말세지말에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의인의 소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낼 때 그 성과는 찾아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기른다」는 말은 달리 표현한다면 「교육」인데, 이 말을 풀어보면 효도「孝」(孝)에 아비「부」(父)를 한 것으로 보아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효자효녀가 되게 기르는 일, 그것은 옛부터 우리 교육의 지고지선의 명제였으며 우리 노(老)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강조하시는 말씀이기도하다. 그래도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되어져 있다고 하는 충현교회의 주일학교의 교육의 현황은 어떠하며 과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야 할 것인가?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라고 의친 저 회합의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의 논리상의 오류를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야겠다.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었기에 그 인간은 영영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제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아분열의 모순 속에서 해마다 영영 절망하지 않았는가. 충현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척도는 과연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척도는 곧

올바른 가치서열상의 문제와도 직결되며 이 가치서열상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기준이 무엇이냐는 오늘날의 주일학교 교육 나아가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기독교교육의 사활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양적인 비대가 과연 질적인 승화를 가져다 준다고는 절대 보장할 수 없다. 스물넷의 연륜을 헤아리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의 토대 위에 이제 새 성전 건축과도 비례하는 새로운 주일학교 교육건설을 위한 한편의 청사진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주일학교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교육계에서는 절박한 「교육의 위기」논이 대두되고 있다. 이 위기론은 교회교육 즉 주일학교 교육에서도 결코 예외일 수만은 없다. 혼탁한 교육환경과 저질 매스컴의 범람, 기회주의 황금만능의 사고방식, 인본주의 자유주의의 타락된 지도윤리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교회의 직접적인 제 요인들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교사의 자질문제는 우선 뒤로 미루어두고 교사의 절대수가 부족한 점이라든가, 구태의연한 교수법으로 맨손으로 입으로만 외쳐지던 분위기 속에서 한참 떠돌아 마는 것이 되어서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주일학교는 일반 교육기관에 부속되어 있는 기구도 아니며 여유가 있을 때 할만한 일이라든지 또한 여분의 정력을 소비하기 위하여 있는 기구도 아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해 완전한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교육분야는 가정과 학교와 마찬가지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대한 사명을 가진 기구이다”라고 프랑스의 어떤 사상문제 연구자들이 미국의 주일학교를 시찰한 후 공정하게 평가를 내린 것이다.

그러면 주일학교 교육이 왜 무엇보다도 중요한가?

첫째 주일학교 교육사업이 성경적인 까닭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교육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을 네 아들과 네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여호와께서 네게 이끄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노라”(신 4:9-10). 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6-7)라고 하면서, 자녀교육을 강조·명령하였으며, 사무엘은 성전에서 엘리에게 수종들며 자라나면서 교육을 받은 후, 그가 선지 성경학교를 설립하여 주관한 일(삼상 9:19-5:10), 여호사밧이 율법을 가르친 일(대하 17:7-9),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세우고 제자를 교육한 일(왕하 2:3,5; 4:38, 6:1),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경을 자세히 가르친 일(느 8:1-12) 등은 오늘날 주일학교 사업의 일종으로 이 사업을 매우 중요하게 보여주는 사실인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들 유대회당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열두 살 때 유월절에 성전에서 여러 교사들과 토론하신 일(눅 21:41-45), 또한 「어린이들을 먹이라」(요 21:15-17)고 하신 말씀이라든가 또한 「교사는 교역자의 일임」을 논한(롬 12:

7) 바울 사도는 또한 목사는 교수할 줄 아는 자라야 한다(딤후 3:2)고 하면서 교수할 때는 성경을 교과서로 사용해야 한다(딤후 3:16, 17)고 젊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잘파한 성경적인 근거인 것이다.

둘째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소망이 큰 사업인 까닭이다.

미국의 지도자가 된 훌륭한 사람 100명에게 「주일학교의 가치성」을 문의한 윌리엄 에트킨슨의 글에서 루디에나주의 전 지사였던 랜킨을 위시한 많은 정치가들의 말이 “주일학교는 미국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기관의 하나이다”고 한 것이었다. 또 뉴욕주 대법관인 루이스엘 화우셋은 12년간 법관생활을 해오면서 4,000명의 소년소녀 범죄자를 취급하였는데 그중에서 주일학교에 다닌 이로서 범죄한 이는 단 3명밖에 없었다고 했다. 사실 젊은 이들의 악한 생각과 범죄의 물결을 방지시키는 데도 주일학교의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주일학교가 교회발전에 터전이 되는 까닭이다.

주일학교는 교회의 황금밭이다. 대체적으로 공경하게 교회를 관찰해 본다면,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계획이나 정력을 추진하는 것이라든지 재정적 뒷받침 등이 교회 전체의 10%도 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교회의 일반적인 실정인 것 같다. 이제 그러던 왜 주일학교가 교회발전에 터전이 되는가. 벤슨 박사(Dr. Benson)가 말한 바에 의하면 미국교회의 85% 교인이 주일학교를 거친 이들이며 선교사나 교역자들의 95%가 역시 주일학교를 나온 사람이라 한다. 우리나라도 주교 교사 및 찬양대원들의 89%가 그리고 교역자의 92%가 주일학교를 통과한 분들이라고 나온 것이 있다. 미국의 혼나단 켄달씨는 “만일 주일학교사업을 돌연히 없애거나 중국적으로 없애기로 한다면 교회자체가 한 세기 동안 계속될지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필라델피아의 베다니장로교회, 뉴욕의 성 파울(St. Paul)교회, 성 조지(St. George)교회, 시카고의 무디 기념교회의 예를 보면, 비록 적은 교회였으나 주일학교의 알찬 교육으로 큰 교회로 발전한 반면에 연연가는 큰 교회였지만 주일학교가 빈약할 때는 점점 퇴보한 실패를 여기 저기서 볼 수가 있다. 주일학교는 미래교회의 규모를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적인 정신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째, 선교운동은 주일학교로부터!

주일학교는 국내에서의 큰 전도기관인 동시에 외국 선교사업을 위한 큰 선교기관인 것이다. 중원교회는 이제 세계를 향한 선교의 본격적인 대열에 나선 지금 주일학교의 활동이 선교에 기여한 선교사수를 많이 참고하여 그 방법론적 원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 땅에 처음으로 선교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주로 장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지 어린이는 전혀 무시하였으나, 그 방법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그들은 곧 어린이와 청소년·소녀들에게 전도와 성경 가르치는 신약시대의 방법대로 힘을 기울여 드디어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제 세계로 향한 중원교회 선교의 전열에서 먼저 주일학교 교육의 현 좌표부터 확인하고 나아가 필요성을 느껴본다.

<다음호 계속>

순직자—길선주 목사

이 정 응 전도사
(새신자부 부지도, 총신대 연구원 3년)

<머리말>

순서가 좀 바뀐 감이 있으나 한국 교회역사에서 빼놓지 못할 영적 지도자가 있으니 길선주 목사이다.

<약력>

1869년 3월 15일 평남 안주에서 출생하였다. 1896년 선교사 이길함 목사로부터 평양에서 세례받았다. 1906년 새벽기도회를 시작(한국 교회에서 최초)하였다. 1907년 평양신학교 제 1회 졸업하였다. 1935년 11월 25일 별세하였다.

한국 초대교회의 3대 목사라 하면 평양의 길선주 목사, 황해도 김익두 목사, 평안북도의 최원능 목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길선주 목사>

처음으로 새벽기도회 시작

한국 교회는 1885년 4월 5일에 원두우 목사가 정식 선교를 시작하였다. 1907년에 이르렀을 때에는 한국에 지교회 숫자 192처 교회가 설립되었고 목사와 선교사 수는 46명에 달하였다.

이렇게 많은 교회와 목사가 있었으나 새벽기도회를 인도한 분이 아무도 없을 그때, 1906년 장로로서 길목사가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니 이것은 한국과 세계에서 맨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길목사는 신학교 재학 시절이었다.

1907년 부흥운동의 불길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한 결과 토요일 저녁집회에는 1,500명이 모였고 함께 공동기도회를 드렸다. 이때 길목사는 성령의 역사로 큰 회개운동을 일으켰다. 기도 중에 길목사는 일어나 “나는 도둑이올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과거에 범한 죄를 회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친구가 하는 말이 “장로님, 이제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좀 처리해 주세요. 내 아내가 무식하여 할 수 없으니 꼭 부탁합니다”고 하였다. 그런데 길목사는 재산을 처리해 주고 백원을 가졌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사람을 속였습니다. 이 기도회가 나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며 회개자복하였다. 회중들은 이때 자기의 죄를 모두 회개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하여 1907년 한국교회에 전국에 퍼진 부흥운동의 불길은 평양에서는 길목사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였다.

계시록 만독자란 별명도 불고

길목사는 성경을 많이 애독하였다. 그는 성경 66권을 고루 암기하였고 그 중에도 특히 계시록은 1만번이

나 읽었다.

1919년 3월 1일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다 일본 순경에 붙잡혀 2년간 옥중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감옥은 목사의 기도원처럼 되었다. 그는 옥중에서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귀절을 암송하는 참된 사역자였다.

길목사는 옥중에서 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앞을 못보게 되었는데 강단에서 다른 이가 성경을 읽을 때에 글자가 혹 틀리면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낭독하도록 일러주곤 하였다.

수많은 지도자들을 키우고

길목사의 전도를 받고 후에 목사·장로·교사가 된 이가 총 800명이라 하니 많은 천국일꾼을 키웠음에 틀림없다. 앞에서 믿기로 작정한 이가 7만여명이고 세례받은 이가 3천여명이며 40여만의 교인이 목사의 감화를 받았다. 집회의 결실로 설립된 예배당이 100여처이며 당시 부흥회 때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설교시 순경이 거꾸러지고 병자가 병이 나고 기절하는 강도도 있었다.

뜨거운 애국정신 보여준 민족의 지도자

길목사는 1897년 안창호 선생과 함께 독립회를 조직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은 28세의 젊은 나이였다. 1919년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를 때 그는 기독교의 대표자로서 또 우리 민족의 대표자로서 33인 중 1인이 되었다.

당시 유명한 요리집인 명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뒤 경찰서에 통지하고 잡아가라고 하였다. 이때 일본 검사가 물기를 “네가 만세를 불렀는가? 하니 “예, 만세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는가?” “새벽에 수탉이 우는데 나는 수탉 따라 만세를 불렀소.” 이 말은 독립의 열망을 지닌 뜨거운 애국정신을 보여준다.

타사역자들이 흠모한 아름다운 죽음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다. 길목사의 최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신 그의 죽음은 비록 순교는 아니나 너무나 우리 사역자들이 흠모할 아름다운 죽음이다. 새벽기도회를 창설한 그가 1935년 11월 25일 평성노회 사경회 중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다 고창 예배당 강단에서 쓰러져 26일 오전 9시 3분에 하나님 품안에 안기었다.

장하다! 길선주 목사! 최후까지 강단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 가시니 많은 후배의 종들은 존경하고 그 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다.

이단종교란 무엇인가

윤 형 천 전도사
 <충북부지도, 충신연구원 3년>

(2) 다른 영을 전하면 이단이다.

사도 요한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요일 4:1)고 말하였듯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 외에도 악령의 역사가 많이 있다. 이적을 행한다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영은 아니다. 사탄도 이적을 베푸는 능력이 있다(살후 2:9; 계 13:13-14; 16:14; 19:20). 예수님께서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 24:24)고 말씀하셨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마 7:22).

성경은 어떻게 하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은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양과 이리,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마 7:16). 갈 5:19-23에서 바울 선생은 성령의 열매와 악령의 역사를 잘 비교하여 가르쳐 주고 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의 생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는 것이 공식이다.

둘째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인하는 것은 거짓 영이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요일 4:6)고 말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요일 4:2-3)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명히 구분하였다.

세째로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 영들의 소행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거짓 계시를 앞세우며, 성경의 권위보다 자기들이 받았다는 계시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찾아 볼 수 없고 복음을 순종치 않고, 지금도 계속적인 계시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성령이 아닌 다른 영들의 악행이다.

(3) 이단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

성경은 “다른 복음”을 “다른 교훈”(히 13:9), “헛된 속임수” 교리(골 2:8),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마 9:11-12) 등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 ‘다른 복음’이란 거짓된 교리를 의미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딤후 3:16) 성경 외에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기록된 말씀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단들은 성경과 같은 권위, 아니 실제로 있어서는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는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을 갖고 있다. 통일교의 「원리강론」, 물론교의 「물론경」, 크리스찬사이언스의 「과학과 건강」, 여호와 증인의 「새세계 번영 성경」, 전도관의 「피의 복음」, 기독교대한개혁장로회의 「경화록」, 여호와 세일교단의 「말세비밀」 등이다. 이단들의 이러한 경경이 실제로 있어서는 성경을 대진하고 있다. 그들은 표면상으로는 성경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는 그들이 만들어 낸 교리서를 사용하며, 성경은 그들의 교리서를 설명하며, 해석하기 위한 참고서로서만 사용되고 있다. 이단들은 이렇게 그들의 거짓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겉옷으로 위장하여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성경의 완전영감을 부인하는 태도요, 성경을 가감하는 저주받을 행위이다.

성경은 분명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갈 1:7)고 말하였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8)라고 엄하게 말하였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 22:18-19)고 말하였으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설명하며 가감하는 악행을 저행하는 이단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을 사탄의 무리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단의 출현과 성행은 종말론적 현상이다. 이러한 말세에 이단들의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와 비진리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말씀연구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더욱 뜨겁게 하고, 복음의 진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투철한 신학적 입장을 수립해야 한다. <계속>

꼭 이루어질 확신을 안고



- ◇ 본교회 해외복음선교회 정책에 따라서 중동지역에 진출하려는 ◇
- ◇ 선교의 꿈은 일시 중단된 듯 있으나, 현지 파송되었던 이연호 ◇
- ◇ 선교사는 그 집념을 버리지 못한채 그 꿈의 실현을 위해 백방 ◇
- ◇ 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문제의 흥해지역은 어떤 곳인가? 그 ◇
- ◇ 곳에 취업차 나갔던 청년회원 최명옥씨의 현지르보를 지난 호 ◇
- ◇ 에 이어 게재한다. <편집자> ◇

최 명 옥
<청년부 회원>

일부다처제가 코오란에 허락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부인을 버리고 새 부인을 돈을 내고 들여오며, 남편을 잃은 아내는 장자에게 상속되어지고 어머니를 재가시키는 아들에게 새 아버지는 돈을 지불하게 된다. 그래서 총각은 열심히 일하여 돈을 모아야 아내를 맞이할 수 있고 딸 많은 가정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한국인만 따로 예배

그간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모임과 성경공부시간을 가져오던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따로 나와서 우리들만의 예배를 가진 날은 3월 첫 금요일인 5일이였다. 이런 시간이 새삼 감사하여 다시 4월 첫 금요일에 2회 야외예배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4월 3째 금요일 수도 리야드의 각국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떨리는 음성들을 모아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의 부활을 찬양케 하셨네.

이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음정을 맞출 약기는 없었으나 총현 제일성가대의 찬송을 담은 녹음테이프가 길잡이되어 부족한 목청과 시설을 뜨거운 기쁨과 감사로 충만된 시간으로 변케 해 주었다. 또한 찬양을 통해서 장차 한인 교우 집회를 성립하는데 합심할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었다. 영어에 미숙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어 형제애로써 성실히 성경공부를 지도해 오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스미스 대령, 또 예배를 같이 보아 왔던 외국인 성도들과 아쉬운 작별을 고했을 때 다시 찬양하는 복을 얻었다.

마태 14장의 연민의 장면

5월이면 사막땅은 열풍이 분다. 물이 공급되어지지 않아 애를 먹은 아침에도 병원 들안이나 로타리의 너른 잔디에는 풍성한 물을 열심히 뿌려주지만 잔디는 차츰 빛을 잃어가고 꽃도 마른다. 길 가운데서 자라는 줄지은 야자수들은 긴둥지에 수도관의 물이 수시로 공급되어지나 가까스로 제 빛을 유지할뿐 생기없이 늘어져 있다. 강한 태양의 노출로 눈을 뜰 수 없이 시야가 하얗게 부서지는 한낮이던 거미줄같은 그늘이 주어진 나무 밑에서 팔배개를 하고 땅바닥에 드러누워 오수에

취한 아랍인을 흔히 보게 되며, 밤이면 너른 로타리의 잔디에 한줄로 나란히 누워 머릿수건의 반은 머리 밑에 베고 반(半)자락으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깊은 밤잠에든 풍경을 보게 된다.

어떤이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차 위에서 자기도 한다. 해질녘이면 어디서들 오는지 하나를 잔디에 나와서 구차스런 침침(아랍인의 신발로 슬립퍼와 같다.)따위는 벗어버리고 긴 옷자락을 끌면서 노니는 모양들을 본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날이 저물어가는 빈 들에서 우리들을 붙잡고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육신의 양식까지 하늘을 우리러 축하하신 뒤 배불리 먹도록 나눠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기뻐한 마태복음 14장의 장면이 쉽게 연상되어진다.

그러나 날 저무는 때에 모여든 이 무리에게 올바른 영혼의 양식을 공급할 선한 목자는 아직 서있지 않고 확정기를 통해 큰 소리로 알라에게 전하며 마호벳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외치는 삼군 목자의 표효하는 소리만 대기를 가득 채운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열망

교회가 서기까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기도를 드리며 철야기도로 간구해 온 몇몇 성도들의 숨은 기도가 있었다. 우리 중에 잘난 사람 하나도 없고 모두 허물 많고 곧잘 교만해지는 약한 자들이었지만 베게 5명 2어가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너를 쓰겠노라 세우시는 하나님 뜻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라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설교도 시키었다. 나 이 서른이 된 청년이 어릴 적부터 교회는 다녀왔으나 처음 여기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고 토로하던 그 심정은 눈 밖으로 눈물을 흘리지 못한 많은 성도들의 가슴 깊이 흘린 감사의 눈물을 대변한 것이다. 교회는 순조롭게 나날이 성도를 더해가며 자라났다.

거기마다 총현교회에서 성경·찬송 각각 100권씩 그것도 큼직한 것들로 보내주시고 전도지도 보내지자 이 감사함을 어떻게 감당할까 기쁜 열려로 채워지고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꾸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키워주실 모세와 같은 담대한 목자에 대한 열망도 커졌다.

이제 우리에게 목회자만 오시면 다 될 것만 같은 생각들을 대부분 성도들이 갖고 있었다. 6, 7월의 결전 더위가 어떻게 지나갔을까? 별로 기억에 없고 목사님이 오시리라는 8월에 대한 기대만 컸다.

첫시련의 화살—이목사님

그런데 이연호 목사님이 오신 그대에 전에 없던 핍박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교도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서 차츰 「교인」들에 대한 주의보로 좁혀지고 내용도 발전하여 금요일 예배가 없다는 소식도 전달되어 왔다. 이 첫 시련의 화살을 받은 목사님은 우리에게 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시기하는 마귀의 역사가 뒤따라와 성도를 혼란시키며 시험에 빠뜨리려 유혹하니 굳게 믿을 위에 서라고 당부하셨다. 홍해가 앞을 가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으나 모세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인간에게는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드릴 정도로 홍해를 가르고 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환난 앞에 동요하지 않고 그 믿음이 바늘구멍만한 것이라도 그 작은 바늘구멍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만 보여주시고 크게 구원해 주신 출애굽기 역사를 들어 목자로서 첫 사명을 감당하셨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때 성도는 흠뻑하고 기뻐했다.

그러나 사태는 심각하게 진전되어 목사님의 사수대에 주재하신 자체부터 위험한 불씨로 여기는 교도들의 눈길과 집회 참석자의 명단이 들어갔다는 소식, 집회를 중단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간섭이 각 개인에게 갈 것이라는 정보도 들어왔다. 때를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성숙한 때가 오면 다시 오겠노라 다짐하시면서, 모든 비난까지도 감내하시며 떠나시는 분이냐 보내드리는 성도들이나 모두 육신의 한부분이 떨어져 가는 듯한 아픔을 겪어야 했다.

풍랑후 모인 9명

풍랑이 일어난 후 모인 성도가 9명, 얼마 전의 충천하던 기쁨과 소망이 전쟁터처럼 휩쓸려 지나간 자리에 남고 또 남아서 다시 모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으리라. 여자라면 일단 시련의 대상이 되는 이곳 환경에 시험이 들어 우리의 참실이 혹 남은 자들의 모임을 폭로시키는 결과를 빚을까 염려하여 망설이던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며 격려해 주던 성도들, 힘을 얻고 다시 사모하는 예배 장소를 찾던 날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전물유족처럼 초체해진 우리의 뒤편에서 들리던 가족 찬송소리, 어린이들 찬송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평화를 일깨워 주셨다. 지나간 우리 한인교회를 돌아보고 일어났던 사태를 분별하며 앞으로 할 바를 제시하는 말씀을 전하던 어느 성도의 설교내용을 간추려 기억해 본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찬송하던 이스라엘민족이 예



〈원주민 아이들에게 접근한 필자〉

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다? 권세있는 새 이스라엘 왕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리라.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서는 허망하게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모든 꿈이 며칠 사이에 산산히 부서져져 흩어지고 이제 목적을 잃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 엠마오촌으로 가는 도상에 섰다(눅 24:13~35 참조). 이 「엠마오 도상」의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얻은 말씀의 교훈이 컸다. 목사님을 기다리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던가! 오시기만 하면, 좋은 알곡 말씀도 듣고, 성경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활동도 전개하고, 면모도 갖추며, 축도도 받고, 학습과 세례도 하며, 사택에 나가 기도드리고, 여름 휴가면 수양회차 해변으로 나가고…… 그러나, 부풀기만 했던 기대를 깨뜨려 주신 분이셨다. 이 허망한 일 앞에 목사님 당부도 잊고 흩어져 예루살렘을 떠나 제각기 갈 길을 걸고 있던 우리들, 흩어진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병중에 있던 성도도 있었다. 엠마오 도상에서 발길을 예루살렘 쪽으로 돌린 제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통회하며 눈물로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비쳐 주시고 눈을 밝게 해주시는 하나님, 서로 핑계하지 않으며 위에 계시는 이에게 의지하고 구하게 하신다.

이교도들의 금식의 달

9월의 이곳 풍경을 보면 9번째 달인 금식의 달 라마단(Rhamadan)으로 일색을 이룬다. 병약자를 제외하고는 일출에서 일몰시간까지 금식하고 밤이면 라마단 특별식을 차려 먹는다. 금식하는 낮동안은 대부분 잠을 자고 밤에 일을 하는 밤낮의 도치현상을 보이는 때이다. 라마단 절기에는 특히 기도시간을 철저히 가지며 외국인 모슬렘도 얼굴·손·발을 씻고 특별기도를 드린다.

일몰이 가까운 시간이면 모두 음식 장만에 분주하고도 미리 차려 놓은 음식상 앞에서 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재미있는 풍경도 보게 된다. 일몰 후, 기도시간을 알리면 거리에는 불비던 차량들도 순식간에 숨어버리고 인적이 완전히 끊어진 고요가 깃든다. 빈 시가지만 횡하니 남게 된다. 이 절기가 끝나고 새달(月)이 생기는 3일간 이드 휴일(Eid Holiday)이 있는데 이때는 마치 명절과 같이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상점은 모

조리 배석하여 주민들은 식량도 미리 구입해 놓는다. 특히 구(舊) 리야드에 가보면 축제가 벌어진다. 집안 골동품(주로 무기)을 들고 나와 춤추며 환호하는 축제 날이라도 역시 여성은 참여 못하고 집안에 갇혀있다.

여성의 나들이—병원과 동물원뿐

병원과 동물원은 이 나라 여성이 문밖 세상으로 나들이하는 기회와 구실이 된다. 소재가 빈약한 이곳 동물원에 갔을 때이다. 월·목요일은 여성만이 입장할 수 있는 날로 남편은 동물원 밖에 가족을 내려놓고 갔다가 마감시간 즈음해서 되돌아와 다시 싣고 간다. 동물원 내부는 배일을 벗고 진한 화장품 냄새를 풍기는 여인전하였다. 해방과 자유를 그간 까만 배일 안에 가둬놓아야 했던 여인들은 신비스러운 눈초리로 타인을 관찰하며 수다와 떠들썩함으로 즐거운 심정을 노출시킨다.

동물 근처에는 오히려 인적이 뜸하고 입구에서 동물 우리에 이르는 길목에 인파를 이룬다. 사진사도 여자로 길목에 앉은 장사아치도 여자라 온통 여자뿐이다. 날이 어두워 흐르라기로 마감할 알리는 동물원지기가 성큼성큼 다니면서 입구로 돌아오면 허겁지겁 쟁겨서 입구로 나오고 문 밖을 나설때면 벌써 똑같은 모습들이 배일 쓴 여인의 무리로 변한다. 날도 어둡고 여자들은 똑같이 까만 배일을 썼지만 남편들은 쉽게 찾아내어 차에 싣고 떠난다.

개화된 가정에서는 딸도 여자대학까지 보낸다. 그러나 국법과 가문의 명예를 인하여 교문 밖에 일단 나서면 모두 배일을 두르고 남성이 강단에 설 경우 강사는 학생을 볼 수 없고 텔레비전을 통해 강의하고 학생은 전화로 질문한다고 한다.

길고 긴 건조기로 10월이면 거의 매일 밤마다 거리는 부우연 먼지가 가득하다. 강우량이 많은 3·4월이면 시냇물이 흐르던 지역이 비가 뜸해지면 일주일이면 채 못되어 다 마르고 건조기 동안은 자취도 찾기 어렵다. 길이를 헤아릴 수 없는 길은 우물에서 끌어올린 물의 공급에도 수목은 겨울 나무처럼 푸석푸석 탄다. 밤 기온이 서늘한 11월, 사막에 노오랗게 남았던 풀들은 비오실 없이 가느다랗게 빛을 피우기 시작한다. 우리가 화석을 즐기자 예배 후 나선 날은 11월 초였다. 시내에서 약 150여km가량 떨어진 먼곳, 사방을 둘러보아 보이는 것은 사막의 능선과 계곡뿐이며 귀가 멍해

지는 외딴 이곳에 한국인 업체와 노동자 숙소가 작게 자리잡고 있었다. 뜻밖의 방문자들을 맞은 이곳 사람들은 숙소의 어둡고 작은 창을 통해 동쪽이던란 처음에는 의인들처럼 먼 눈으로 내다보고만 있었다. 너무 격리되고 소외되어진 환경에 익어진 이네들의 낙(樂)은 작은 망치 하나를 들고 나가 계곡에서 화석을 즐기는 일이라 한다. 망망한 사막 가운데에서 주는 조개 화석도 귀하지만 소외된 환경에 갇힌 축적없는 눈길들에게 향수의 파문을 던진 우리 일행은 한 구석이 아파왔다. 이곳에서 교회를 찾아오는 몇몇 성도들은 또 얼마나 귀한 친구인가, 언젠가는 이 오지에 사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성지순례 때 모슬렘교도들 봄벼

11월은 하지(Haji)라 이르는 성지순례 기간이다. 크고 작은 차량 위에 담요와 식기·텐트를 싸매어 싣고 줄줄이 오는 이들은 욕로를 통해 오는 자들이고, 공항역시 세계 각국의 모슬렘 순례자들로 붐빈다. 성지로 가는 길목에는 큰 천막과 순례자들이 비용을 융통하기 위해 가져온 카페트를 파는 시장이 선다. 출입국이 더욱 까다롭고 힘들어져 공항에서는 순례자 우선으로 탑승하고 경비를 맡은 자는 회초리로 감시한다고 한다.

찬송소리에 아랍노인 춤추고

맑고 투명한 바다를 보며 즐거워 찬송하는 우리 앞에서 수염이 허연 아랍 노인이 덩실덩실 춤추고 20여명의 아이들이 손뼉치며 즐거워하는데 인적이 없으므로 겨우 배일을 걸친 여인들은 수줍어 뒤로 숨으려 했다. 더욱 힘차게 찬송을 부르자 노인도 아이도 여인네들도 흥이나 우리에게 강단을 맞추었다. 이제 이 후손은 진정 구세주그리스도를 기뻐함으로 덩실덩실 춤추고 손뼉치며 넘쳐 웃어야 되지 않을까!

한인교회가 차츰 은혜로워짐은 예배마치고 가정을 찾아가 모여 간증과 기도, 담소하며 차린 음식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실로 가족처럼 느낄 때이다. 항상 장소가 빈곤했던 우리가 자유롭게 둘러앉아 이야기 나눌 때 깊이 스미는 기쁨과 감사는 컸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본단위인 것 같다. 가족이 교회에 나오고 가정에서 다시 모이니 분위기는 새롭고 포근했다. 기한을 마치고 떠나야 하는 우리는 좀 성숙해지려는 이 모임에 더 동참하지 못하는 큰 아쉬움이 있었다. 이제 우리가 가던 그 자리에는 또 더 좋은 성도들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익히 알아 감사 중에 송별 예배와 송별 모임을 가진 후 떠나왔다.

선교의 길 열릴줄 확신하며

그 후, 교회가 은혜로 차츰 새로운 결신자들이 나서니 다시 마귀는 심히 시기하여 근원도 불분명한 시험이 몰려오고 있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이니 선교의 길도 열려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며 우리 총회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께서는 세את을 뿌리는 자리에 서서 단을 거두을 때까지 눈물의 기도를 뿌려 주실 것을 소원하며 이 글을 맺는다.

(*)



<원주민들 속에 끼인 이연호 선교사>

도서실은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에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소장된 책들을 도서대장순에 따라 소개합니다(책명/저자(편자)/출판사)

- 현대 젊은지성들의 질문에 답하여/윌리엄·W·오어/생명의말씀사
- 구원의교리/J.클라이드·터너/침례회 출판부
- 교회와신학/이종성/장로회신학대학
- 율법이나 은혜나/M.R. 디한/생명의말씀사
- 십계 TEN COMMANDMENTS/차동만/은성문화사
- 그리스도와 문화/H·리차드 니비/대한기독교서회
- 교회음악약사/원진희/대한기독교서회
- 교회예산개발론/해리·R·페이지/크리스찬헤럴드사
- 세계교회운동/박창목/성학사
- 교회정치문답조례/J.A 하지/은성문화사
- 한국교회문헌분류법/김창의/한국신학도서편집회의
- 성령론/R.A 토레이/대한기독교서회
- 레위기강의/곽안련/대한기독교서회
- 가나안으로가는길/김용기/창조사
- 인물중심의 교회사/E.S 모이어/대한기독교서회
- 사신단일문/부래넌/침례회 여전도연합회
- 한국의 신흥종교/탁명환/신흥종교문제연구소
- 신약교회교리/J.클라이드 터너/침례회출판부
- 세계구속의여명/에릭·사우어/생명의말씀사
- 진화론과 현대기독교/헨리M. 모리스/생명의말씀사
- 신학논단/연세대학교신학대학/연세신대신학회
- 족장들의생애/한국어린이전도협회/한국어린이전도출판사
- 교의신학/박형룡/보수신학서적간행회
- 영생의길/J.R. 싸운더스/침례회출판부
- 성서지도/대한기독교서회/대한기독교서회
- 종교편람/문화공보부/문공부
- 피로쓰글씨/로버트·콜먼/크리스찬헤럴드사
- 하나님의 뜻대로/A.W. 핑크/한국개혁주의실행협회
- 한국기독교교육사/대한기독교교육협회/대한기독교교육협회
- 교회정치문답조례/J.A 하지/은성문화사
- 십계명과 십자가/김문제/제일출판사
- 에베소서연구/松尾造酒藏/대한기독교서회
- 디모데의연구/찰스·에이·트렌델/침례회
- 디모데와 디도에게 한 바울의 서신들/단디·웰트/서울성서신학교
- 계시록강해/조세광/크리스찬헤럴드사
- 칼빈주의 문화관/해리·R. 뎀벨/영음사
- 교회력/에드워드·T. 혼/퀸클리언사
- 한국교회사/곽안련/대한기독교서회
- 매일묵상성서강해/강태국/일일사
- 성경신학/박윤선/영음사
- 디모데전후서·디도서/채필근/대한기독교서회
- 열고도어려운길/임백진/기독교문서
- 조직신학개요/최인원/은성문화사 <다음호 계속>

<독서 캠페인>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신문·잡지 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
.....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
.....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
.....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
.....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
.....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 생.....
.....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 적어.....
.....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
.....워 가자는 의도에서 급면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 총현」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 책 ★

스틸, 토머스 공저

김 남 식 옮김

칼빈주의와 알미니언주의

한국성서협회 발행

4·6판 158면 값500원

총판/정 음 서 립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토대로 하여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으며 세상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를 극복할 수가 있다. 성경을 기초로 하여 다져진 신앙만이 우리의 생활과 동화되어 일체화될 때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리라 본다.

본서는 장로교의 교리적 기초가 되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언주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대조하며 쉽고도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 일반 평신도들로부터 신학생들과 교역자에게 이르기까지 폭넓게 읽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 신앙사조로 혼란한 이 때 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 인간구원을 궁극적으로 인간자신에게 의존하며 믿음은 인간행위이며 죄인에게 주신 선물에 불과하다는 알미니언주의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헤쳤다. 어떻게 믿음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렸으며 누가 인간에게 구원을 위하여 선택될 것인가도 인간에게 달렸다고 할 수가 있을까!

1619년 도르트종교회의에서 이와같은 알미니언주의는 완전히 거부되고, 칼빈주의 5대교리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개혁주의 신학인 칼빈주의만이 우리의 신앙노선이며 신앙고백인 것이다.

칼빈주의를 더 설명하면, 성삼위 세가지 위대한 사유를 들 수 있는데, 성부애·의한 택정, 성자에 의한 구속, 성령에 의한 소명을 동일인들에게 이루어져 그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성취시키는 것으로 표명된다. 인간의 구원과 믿음을 하나님의 사역에 의존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칼빈주의 견해만이 우리의 신앙정장에 도움을 주며 천국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안영자<월간총현 기자>

1200자 감상

자기애(自己愛)

김 인 숙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아름다운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남을 사랑한다곤 하지만 어떻게 해야한단 말인가? 성경은 “네 몸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해준다. 네 몸같이——그렇다. 이것은 남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고 용납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의 사랑의 원천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 있지만, 남을 사랑한다 함은 나를 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생사를 좌우하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내가 있지 않고선 남을 사랑하는 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개인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비록 날 때부터 병신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씀하셨던가. 그처럼 소중한 개인——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들은 혼동한다. 그래서 남은 사랑해야 하지만 자신은 사랑해선 안된다고 착각하거나 오해한다. 또 아파하는 이와 같이 아파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사랑의 행위일 수 없다는 걸 발견하기도 한다.

진정한 자기애에 대한 사랑은 이기심과 엄밀히 구별될 것이며, 자학이나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하는 방종과 안일과도 구분된다. 「네 몸같이」 즉 자기 몸을 소중히 여겨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하듯 자신의 필요를 잘 알아채고 그 진정한 공급원으로부터 받는다. 자신이 비록 불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들도 없다는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사람이 자신을, 더 나아가 남을, 우리의 주님을 사랑한다. 이러한 것이 결코 야심이 나 고집일 수 없으며 오로지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스스로 바로 서는 일이다.

자기를 바로 사랑할 줄 아는 신자만이 세가지 질문——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때와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해 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지금 이 순간에 현재 내가 고쳐하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더구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제약을 받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신자만이 어려움 속에 스스로를 함몰시키지 아니하고 희망——그것도 막연한 낙관이 아닌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진——이 가능할 것이다.

불법이 따뜻하다. 물오른 뽕나무 위로 자기를 사랑했던 또 하나의 삭개오가 정말 자기 모습을 찾고 자 기어오른다.

내 너를 위하여

(I gave My Life for Thee)

(새 230; 개 412; 합 180)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남에게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이는 사소한 일을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게 된다.

1858년 한 연약한 젊은 여인이 독일에 있는 어느 화랑에 앉아 있었다. 그가 프랜시스 해버갈(Frances R. Havergal)이었다. 해버갈은 너무 몸이 약해 공부하는 틈을 이용해서 여행함으로써 건강을 돌보라는 부친의 권유를 받아들여 독일 뉘른베르크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화랑에 있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그린 그림 앞에 앉게 된 것이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고상 머리 위에 “나 너를 위해 이 일을 했지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라고 적혀 있었다. 십자가상의 그림과 이 말은 즉각적으로 그녀의 관광여행의 방향뿐 아니라 43세까지의 인생의 방향도 바꿨다.

그는 그림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 다음과 같이 몇 줄의 시를 썼다.

나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었고
내 귀한 피를 흘려서
그대의 죄값을 치루었고
죽음에서 소생케 하려고
나 너 위해 내 목숨을 주었는데
너 무엇을 나에게 주었느냐

그날 저녁 난로 앞에 앉은 그녀는 이 시를 다시 꺼내 읽었다. 어쩌지 자신이 없었고 영감을 잘못 표현한 것만 같아 무가치하게 생각되어 꾸기적거려 난로불에 던졌다. 그런데 웬일인지 굴뚝에서 바람이 거꾸로 불어 내려와 그 종이를 도로 밖으로 토해내는 순간 “종이를 태우지 말고 도로 주워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는 영문도 모르고 재빨리 도로 주워서 뒀을 때 그 종이는 가장자리만 조금 그슬려 있었다. 해버갈은 종이를 책상으로 가져다 그슬린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여 핸드백에 넣어 두었다. 그날 저녁 빈민굴의 가난한 여인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핸드백에 넣어둔 그슬린 종이를 꺼내어 읽어 주었다. 그것을 들은 여인들은 그 은혜를 받아 뜨거운 감사를 했다. 그후 해버갈은 영국으로 돌아가 당시 목사요 찬송가 작사·작곡가였던 부친에게 그 시를 보이며 모든 것을 설명했다. 부친은 딸에게 몇 줄 더 쓸 것을 권유하여 “내 너를 위하여” 찬송시를 완성시키게 하였다.

그의 말년 임종이 가까왔다는 것을 알자 “천국문이 이토록 가까워지니 참으로 장관이다”라고 하며 기쁨으로 43세의 짧은 생애를 하나님 결의로 이진시키기까지 그녀는 많은 찬송가 작사와 작곡, 독창자로 피아니스트로 그리고 어학에 능하여서 원어로 성경을 읽으며 신약과 시편 이사야서를 거의 외운 신앙인이었다. 그후 블리스(Philip Paul Bliss)가 이 시에 은혜를 받아 곡을 붙였다.

구역 소식

축하합니다(2월 중 결혼)

- 정문용/취경구역-5월 Y.W.C.A. 강당
- 김광조/박순옥집사 아들-8일 중현교회당
- 윤혜자/윤종순장로, 문정애권사 딸-8일 경남 사상교회
- 윤형철전도사/윤종성장로, 신군자권사 아들-28일 중현교회당
- 김혜숙/김희보목사 딸-3월 1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 박종현/청년부회원-3월 1일 중현교회당
- 강희숙/광희구역-3월 1일 기독교 태화관
- 배한수/배한웅집사 동생-3월 5일 기독교태화관

위로드립니다(2월 중 별세)

- 인영순여사/정인종집사 부인-7월
- 김양집/화양구역-22일
- 박호준/박영재씨 부친-24일
- 이근호/홍인 ① 구역-27

이민(2월 중 이민)

- 김신희장로/정능구역-17일 미국으로
- 이신실/청년부회원-24일 미국으로

구역요원 훈련요강

아래와 같이 구역요원 훈련을 실시합니다.

1. 기간 : 4월 하순, 5월, 6월 상순, 10월, 11월 (연 4개월간)
 2. 회수 : 4개월×월 2회=연 8회
 3. 시간 : 오후 7시 30분부터-기도회 20분, 수업 70분
 4. 과목 :
 - (1) 그를 성경공부 방법-김하진 목사 5/6(서), 5/13(동)
 - (2) 예배와 경건생활-김재창 목사 4/15(서), 5/22(동)
 - (3) 성도의 교제와 그 방법-김종택 목사 5/20(서), 5/27(동)
 - (4) 우리교회 신앙노선-정관일 목사 6/3(서), 6/10(동)
 - (5) 직분론(청지기론)-정상우 목사 10/7(서), 10/14(동)
 - (6) 개인전도와 새신자 육성-정기성 목사 10/21(서), 10/28(동)
 - (7) 심방과 구역행정-백성룡 목사 11/4(서), 11/11(동)
 - (8) 성도의 사회생활-이성근 목사 11/18(서), 11/25(동)
 5. 훈련대상 : 구역담당 권사·집사·권찰은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함.
- ※ 구역담당 외에도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구역장 노트⑭ □

신앙지도의 지침(6)

백 성 룡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장>

② 결혼조건 : 사람마다 결혼조건이 같을 수는 없다. 건강·재산·지식·직업·문벌·가정환경 등 그 어느것을 택하든지 어느것을 우선순위에 두든지 자유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자로서는 신앙적인 면에서와 진덕상에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1) 그리스도 안에서 택할 것-진실한 신자라면 다른 조건들이 다 좋아도 불신자라면 배우자로 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성경은 믿음 안에서 택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고전 7:39; 고후 6:14) 신앙은 결혼의 제1조건이다. 믿음이 좀 미숙하다는 데서는 용납이 될 수 있으나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처음부터 혼담을 말아야 한다.

목사가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학습을 하지 않았거나 유아세례인으로서 입교문답을 받지 않은 사람)의 결혼을 주례할 수 없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역원들 가운데 이런사람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신앙문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할 지도 해야 할 것이다.

2)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한다-결혼은 결혼하는 당사자들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결혼이어야 한다. 건덕상의 문제는 복음전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일로 빚을 잃거나 교회에 피해를(정신적인 면에서) 입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7. 아무리 자유결혼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식된 도리에 합한 일이다.

나. 신분상 혹은 신체상의 결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모두 말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부부생활에 있어서 숨겨서는 아니될 결합(과거가 아니고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야기될 문제)을 고의적으로 숨긴다는 것은 신앙양심상 있을 수 없다.

다. 법률상으로 잘못된 결혼이 아닌지의 여부를 서로 확인할 일이다. 이런 뜻에서 주례자는 사전에 부모님 (혹은 다른 보증자)의 승낙서와 호적등본을 제시하도록 함이 옳은 일이다.

③ 결혼의 형식 : 자유결혼이든 중매결혼이든 간에 상관할 것 없다(창24장 이삭의 경우를 중매결혼이라고 한다면 창29장 야곱의 경우는 자유결혼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에 의하여 축복을 받은 제도라고 알고 있을 때 주일을 범하지 않도록 할 것과 주님의 교나주간에는 피하여야 한다.

나라 위한 특별기도회 가져

—오늘 여의도 광장에서, 당회장 김목사 회장단에—

우리의 국내외가 비상한 때를 즈음하여 그저 앉아서 보기만 할 수 없다고 여겨 전국적으로 3월 27일 기해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여의도 5·16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 모임의 취지문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고 특히 「주한유엔군 철수문제」와 「자유우방의 한국에 대한 바른 인식의 필요성」등 긴급한 상황들을 앞에 놓고 한국교회(전체 개신교)는 그대로 좌시할 수 없어 우리의 입장을 대내외에 바르게 천명하고 신도 대회를 개최하여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갖기로 작정하였다”고 표명했다.

본교회 당회장 김창원 목사는 이 모임의 회장단에 선출되었는데, 우리교회에서는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4부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절 행사 4월 10일에
4월 8일은 전국교회 금식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사망관세 이기시고 다시하신 부활절 행사를 금년에는 오는 4월 10일에 지키게 되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자부가 음악예배 등 부활절을 축하하는 각종 순서를 마련, 진행시키기 위해 준비중이다. 이에 앞서 4월 8일에는 전국의 모든 성도가 주께서 당하신 고난을 되새기며 하루를 금식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날로 정해져 있다.

기업인수련회 가져

지난 14일, 이어 산업전도회 월례회

성경학원과 산업전도회 공동주관으로 기업인수련회가 지난 14일 유년부실에서 김익명 장로(태복메리야스 사장, 청량리중앙교회 시무)를 강사로 기업인수련회를 가지고 이어서 산업전도회 월례회가 있었다. 강사 김장로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위임받은 청지기여 불과하다”고 전제하면서 태복직장교회를 중심으로 직장복음화 활동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본교회 산업전도회원들의 질문도 받았다.

한편 산업전도회는 월례회에서 한광일 전도사(부평우리교회 시무)를 감동적인 전담교역자로 받아들일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각직장에서 직장예배 인도 등 직장복음화 전략에 힘을 기울이기로 결의하였다.

국내전도에도 힘쓰는 전도위원회

—대 학생 전도지 24,000매 만들고—

우리교회의 국내외 전도활동에 대한 「규약」의 성문화 등 새해들어 의욕적인 출발을 한 전도위원회(위원장: 최석주 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허락을 얻어 3월에 대학생용 전도지를 2만4천매를 제작하는 한편 성현교회 등 외부교회 군(軍)선교를 위해 많은 보조를 해주었는데 이번에 보조를 받은 곳은 다음과 같다. 성현

교회 건축보조에 1백만원, 대병교회 건축보조에 3만원, 양양교회에 3만원, 임초리교회 교역자 생활비로 3만원, 장로회총회 군복단장 생활보조로 36만원, 공군 제9775부대 군인교회 건축보조에 5만원, 제3301부대에 3만원, 육군방공포병학교에 5만원, 해군사관학교 군중출업생기념품(성경)보조로 6만원, 공군사관학교 군중출업생기념품(성경)보조에 8만5천원, 그리고 군복주일을 맞아 10만원 보조, 전국여전도회에도 10만원 보조하였다.

성전건축에 힘쓰는 성현교회

—여전도회 지교회로 계속 후원—

우리교회 여전도회(회장: 김봉재 권사)가 개척 당시부터 지원해 오던 영등포 개봉동 소재 성현교회는 온성도들이 성전건축을 위해 1,100만원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기도하며 기금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예배장소의 협소로 시급해진 상태에 놓여 있다. 지금 목표액 중 나머지 400만원 확보를 위해 계속 힘쓰고 있다. 그런데 성현교회는 본교회서 일하던 이종영 목사가 시무하며 설립된 지 1년 9개월된 교회이다.

춘기 성례식을 거행

—성찬식, 다음 주일에—

금년도 춘기성례식이 이달 말인 31일부터 시작되는 데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 문답: 3월 31일 오전 10시 ~ 오후 9시까지
4월 1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 (2) 세례식: 4월 1일 오후 7시 30분부터
- (3) 성찬예식: 4월 3일 I · II · III · IV 부예배시
- (4) 문답의 자격

- ① 학습: 교회출석한 지 6개월 이상된 사람으로 만14세 이상
- ② 세례: 학습받은 후 6개월 이상
- ③ 입교: 유아세례받은 사람으로 만16세 이상
- ④ 유아세례: 만2세 미만의 아기로, 부모의 신앙적 합의자

이에 앞서 학습·세례문답자를 위한 교육이 3월 21일과 22일 이틀간에 걸쳐 매일 오후 7시부터 유년부실에서 있었다.

역사적 장로투표 1·2·3·4부 예비때

—4월 17일, 일곱분을 목표로 실시—

지난 3월 1일 당회는 해마다 증가하는 각기관 지회의 업무량을 감당하며 현 규모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4월초 노회 승인을 전제로하여 7명을 새로 세우기로 하고 4월 17일(주일) 각부 예비시에 투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오늘의 교회 규모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무장로(현재 28명)의 수를 고려하여 투표하게 되는 처리장로직은 교인들의 탄압을 받고 교인들을 대표하여 당회장을 도와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게 된다. 장로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만30세 이상된 남성으로 흠없이 5년을 지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집전 3:1-7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선거는 당회가 교회에 미리 광고하여 작성한 시간에 출석한 대로 개최하여 투표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可)로써 선정한다. 투표권은 우리교회 등록된 무흠 교인은 누구나 가지며 그 방법은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지난 해 장로선출 투표에서는 5명 목표에 2명을, 재작년의 경우는 10명 목표에 3명이 선출된 바 있다. 그것도 2차투표까지 실시하여 결정되었으므로 교회에서는 장로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고 처음의 뜻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하며 준비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야고보서를, 4월 24일에

해마다 실시해 오는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올해도 교육위원회의 주관 아래, 오는 4월 24일 신약의 야고보서 전장을 내용으로 하여 암송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행사를 위임받은 교육위원회는 관계분과로 하여금 세부계획을 작성, 각기관·지회에 알려줄 것이라고.

성경학원에서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23일까지 유년부실에서 신성종 목사(고려신 교수)를 강사로 야고보서 특강을 실시한바 있다.

는 한편 다음과 같은 조직을 보았다.

출판위원장: 송순일 장로 서기: 조현명 장로

간행물분과위원장: 김기정 장로

위원: 위영환 장로·정상우 목사·정기성 목사

실무위원: 조선근 집사·김차생 집사·정은표

집사 이형수 집사: 오태웅 집사

독음분과위원장: 최석주 장로

위원: 백성룡 목사·신계택 장로·김태현 강도

사 실무위원: 오정수 집사

재경분과위원장: 윤종순 장로

위원: 윤종성 장로·김봉재 권사

당 회 대폭적 인사 단행

—전임목사 두분 전도사 한분 등—

우리교회가 숫적 양적으로 크게 성장·발전됨에 따라 구역을 4개 구역에서 금년 5개 구역으로 확장되면서 전임 교역자들이 더 요구되었고, 교회의 과다한 업무량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수행을 위하여 전문직의 더 많은 일꾼들을 요청하게 되어 당회는 인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인사조치를 하였다.

·전임교역자/이성근 목사·김하진 목사·

김용선 전도사

·출판위원회 전임상근자/조선근집사·정은표집사

·영아부부감/정하우집사(박용삼집사 후임)

·유치부 부지도/장선애선생(홍신대 재학)

·중등부 성가제회자/이인승선생

출판위원회로, 임원추가해

간행물·독음·재경 3분과로

이미 지난호에도 보도된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설교 카세트 녹음하는 일과 설교집·성경강해집을 발간·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특별사업추진위원회는 새로 출현출판위원회로 명칭을 정하고, 위원으로 백성룡 목사·정상우 목사·정기성 목사·위영환 장로·조현명 장로·신계택 장로·김태현 강도사를 추가임명하

장학대상자 범위확대

—과학 예능분야 등에도 적용키로—

본교회는 지금까지 장학생 대상을 신학생으로 제한하여 선발, 장학금을 지불해 오던 것을 그 범위를 더 넓혀 공학, 의학, 음악 분야 등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제까지는 장학금과 기금을 별도로 운영해 오던 것을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일원화시켰다. 본교회 장학위원회는 '77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이준교·윤형철·김영휘·김종석·김수성·이정웅전도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룩한 자라의 선물 전달

—졸업한 선배들 고등부 후배 위해—

지난 2월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선배들이 2월 27일 주일 가난하여 학업을 잇지 못하거나 상급 학교 진학을 못하는 후배들을 위해 그간 정성껏 모아 온 성경,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그들은 1년반 동안 모아 적금한 저금통장과 도장을 고등부에 전달했던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룩한 사랑의 정성을 모은 젊은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김홍균, 안숙영, 안용현, 오진택, 이봉룡, 이영철, 이정현, 이희진, 전승훈, 정매리, 정수일, 천인범, 추정화 등 13명이다.

특별 건축헌금 실시키로

5월 15일 작부예배 시간에

건축위한 계획설계 공개모집 구상중

오랫동안 우리교회 성도들의 소망이던 중헌기도원을 위한 공사가 시작됨과 함께 또하나의 숙원인 성전건축문제가 그 해결의 실마리 찾게 됨에 따라 5월15일(주일)을 맞아 성전건축 특별헌금을 하기로 하였다.



집회장소의 협소로 각기관 지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우리교회의 현재의 실정은 급박한 사태에 이르르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당회는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정성과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건축위원회(위원장: 김기정장로)는 성전건축을 위한 계획 설계를 공개 모집할 구상을 하고 있으며, 우선 중헌기도원 건립될 때까지 현장책임 건축기사로 최 환씨(사진)를 채용하였다.

제 2 성가대 새로 구성

대학부 성가대와 분리 보강

제 4 부 예배는 주교 작부 담당

주일 낮 I부예배 때에 성가를 담당하여 온 대학부성가대(대학생들만 구성)의 실제적인 운영이 여러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제까지 수고해 온 대학부성가대는 본연의 주일학교 대학부성가대로 돌아가고 새로 성가대원을 모집, 제 2성가대(대장: 이병학 집사)를 구성, 주일아침 I부예배 성가를 담당케 하였다. 그리고 3월부터 실시되는 4부 예배는 잠정적으로 주일학교 작부별로 교사들이 임시성가대를 조직, 성가를 맡고 있다. 따라서 주일 저녁 찬양예배 성가를 이제까지는 주로 고등부성가대에서 담당하던 것을 대학부성가대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저녁 찬양예배 성가를 맡았던 고등부성가대는 해당부에서만 성가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제 성가부 산하에는 기존의 청년 제 1성가대와 여성성가대, 제 2성가대 등 모두 세 성가대로 편성되며 주일학교 작부 성가대(유치·유년·초등·중등·고등·대학부)는 주교 산하에 두어 관장하게 되었다.

□ 주일 집회 및 헌금 통계 □

*1977. 3. 6 현재(매월 첫 주 기준)

<집 회>				<헌 금>			
구	분	남	여	계	구	분	계
예배	I부	163	305	468	주일	I부	95,330
	II부	421	1,065	1,486		II부	252,000
	III부	424	806	1,230		III부	243,600
	저녁	212	408	620		합계	2,623,423
주일	I부	132	316	448	주일	II부	384,200
	II부	19	12	31		III부	373,207
	III부	21	34	55		합계	30,000
	저녁	44	46	90		주일	1,028,500
학	I부	46	90	136	주일	II부	19,500
	II부	148	151	299		III부	10,000
	III부	157	188	345		합계	1,755
	저녁	181	158	339		주일	15,025
교	I부	177	178	355	주일	II부	16,680
	II부	79	78	157		III부	22,290
	III부	47	70	117		합계	20,421
	저녁	38	273	311		주일	33,780
교	I부	21	64	85	주일	II부	57,543
	II부	7	43	50		III부	
	III부					합계	
	저녁					주일	
계		2,337	4,285	6,622	계		5,272,254

□ 신급별 교인통계 □

남/여

총세대수	교인총수	세례교인	유세	학습	원일
2,549	2,299/3,522	1,285/2,389	274/211	231/346	509/606

토막소식

*...당회는 수도노회 제 1회 총대로 한명옥 장로, 김기정 장로, 윤두한 장로를 파송하기로 했다.

*...교회는 이달부터 예배 시작을 저녁은 오후 7시30분, 새벽은 오전 5시로 변경하였다.

*...정기성 목사는 2개월간 휴양하기로 하였다.

*...김재일 전도사(여)는 특별한 개인사정으로 본교회를 사임했다.

*...일본주재 평신도선교사 유병세 집사가 부인 이윤호 권사와 함께 지난 11일 입지로 떠났다.

*...태국에 머무르던 이연호 선교사가 지난 8일 이집트 카이로를 향해 출발하리란 소식이 왔다.

*...성경통신강좌 3월호가 성경학원에 의해 출간되었다.

*...제 2성가대는 지난 3월 1일 야외예배를 다녀왔다.

*...새신자부(장년)에서는 새신자부 교재용으로 매주일 한과씩 발행하고 있다.

*...새신자부(어린이)는 3월19일 교사훈련 특강을 열었다.

*...영아부는 4월 5일 반별찬송부르기대회를 가진다.

*...유치부는 4월 3일 타교회 전학가며, 지휘자 김인 선생이 결혼으로 사임하였다.

*...유년부는 4월 10일 반별찬송부르기대회를 갖게 된다.

*...초등부는 4월17일 성경퀴즈대회를 가지려 한다.

*...중등부는 노방전도를 4월 17일에 실시키로 했다.

*...고등부는 4월 5일 성가대 찬목회를 일영에서 가진다.

*...산업전도교육부는 조장훈련을 4월17일에 갖는다.

*...대학부는 4월 5일 산상예배를 10일에 특강을 연다.

*...청년부는 4월 5,6일 임마누엘 기도원서 특별기도회를 갖는다.

*...장년부는 4월17일 찬송가부르기대회를 가진다.

*...노년부는 4월 3일 야교보성 성경퀴즈대회를 열게 된다.

편집자에게 온 편지

□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영풍(靈風)이 온통 충현의 제단을 휩쓸고 있음을 월간 충현을 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과 직원 그리고 온 교우님들과 해의 선교의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성성한 「월간 충현」처럼 만민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 승리에 승리를 더하기를

할렐루야!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존경하옵신 목사님과 교회 내에 평강과 부흥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새해도 보다 더 큰 축복 중에 승리에 승리를 더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교신학교 재학 당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꼭 하려다가 시간관계로 못했고, 충현교회는 꼭 출석했습니다. 목사님의 감화력 있는 설교에 많은 감명을 받았읍니다. 요즘은 이곳 시골에서 복회 중에 있으며 충현 제단이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회 방향, 설교를 멀리서나마 듣고자 충현지를 늘 모으는 중에 있습니다. 본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송구한 난필을 드립니다.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교회 고 해 용

□ 하나님 사업에 희생

하나님의 은혜 중만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본인은 제 4회 농어촌 지도자 대회를 수료한 학생입니다. 이곳 서천읍교회 주일학교를 맡고 저로서는 너무 부족을 느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충현 제단에 두서없는 편지를 합니다.

월간 충현이나 필요한 책을 보고 싶습니다. 널리 양찰하시와 배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업에 희생을 작으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어촌 지도자 대회 때 참석을 하고 싶은데 어느 도에 해당하는지 아울러 연락 바랍니다.

충남 서천군
서천읍교회 나 성 수

□ 매월 구독의 기회

월간 충현을 다른 아는 분을 통하여 읽어 보고 계속적으로 구독하고 싶어 여서를 떠웁니다. 사정이 허락하시면 매월 구독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주 쌍림동 146-1
평림교회 유 흥 규

□ 새로운 주소로 「월간 충현」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매월 정기적으로 충현지를 보내어 주심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번 구독 신청을 여천군 화양면 나진교회로 청구했는데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소로 보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 광산군 삼도면 삼도리
삼도교회 한수열 전도사

□ 도움되는 것이 많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충현교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충현지를 잘 받아 보고 있습니다.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모로 유익하고 좋은 월간지를 매월 받아보니 도움이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대한신학교 도서관

월간 충현 편집자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세계선교를 향해서 복음증거의 기치를 높이 든 우리 충현교회 위에 같이 하시고 충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1월초에 「칼빈주의와 신학자」들에 대하여 감사한 글을 청탁받았으나 그동안 이곳 복음주의 신학교 Seeheim에서 「현대신학의 논쟁에서의 기독교론」이란 강의 수행 때문에 이제야 글을 쓰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 강의는 앞으로 이곳에서 독일어로 출판해 보려는 계획인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충현교회에서 자라났으므로 모교회를 위해서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히 관심을 지니는 칼빈주의의 입장에서 현대의 인본적 신학사조와 대결하면서 신앙을 복음의 입장에서 해설하는 것이 저의 중요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주신 제목도 좋지만 이왕 쓸라면 좀더 당면한 과제로서의 「현대사조와 복음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곳 하이델베르크에 오신 육호기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준비계획을 하면서 오는 3월13일 경에는 뮌헨(München)쪽으로 선교지 개척을 위해서 같이 내려갈 것이며, 박용삼 집사님도 그동안 Adelshofen에 도착했습니다. 3월 둘째주일에 제가 하이델베르크교회에 선교하러 갈 때, 가는 길에 육호기 선교사님과 함께 박용삼 집사님을 만나 격려를 드릴려고 합니다.

저는 3월말까지 이곳 Marburg에 있다가 4월초 화란과 영국을 거쳐 5월 6월에는 다시 하이델베르크, 6월말에는 귀국할까 기도중입니다.

주안에서 늘 평강하시기를 빕니다.

김 영 한 드림

* 김영한 박사는 우리교회 출신으로 서독 하이델베르크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기 자 식

◇...새해를 맞으며 365장의 백지를 주님께 선물로 받았다.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선물이다. 그 백지 위에 누가 얼마나, 잘,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도가 틀릴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벌써 60여장의 백지가 그려졌으나 한달을 주기로 살아가는 것들은 2장의 커다란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가를 감상하면서 다음 장의 그림은 잘 그려보겠노라고 다시 한번 붓을 들어보아야겠다.

□...하나의 작은 기계가 가동하기에는 그 기계를 이루고 있는 부속품들이 질서있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한다. 한 조직체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기계처럼 질서있고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만 된다. 옷사람은 아랫사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며, 아랫사람은 옷사람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한다. 그러나 옷사람이 마비되면 아랫사람은 자동적으로 녹이 슬고 만다. 녹슬은 부속품을 가진 기계는 유연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늘 소리만 내며 생산목표를 미달케 하는 것이다.

◇...계획이란 남에게 나타내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전제로 세우는 것이다. 실천하기가 두려우면 으레 계획안이 구성이 담념어 가듯 넘어가는 식의 임기응변적인 것이 우리들의 주위에 너무나 많다. 그러나 임기응변적인 지혜보다는 만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같이 앉아 지혜를 모아 이루는, 올바른 장기적 계획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줄 안다. 이러한 계획을 놓고 머리를 맞대며 지혜를 짜보는 기본은 산을 정복한 자만이 산의 아름다움을 알 듯이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보람이다.

〈제〉

◇...요즈음같이 살기 어려운 때도 없으리라. 일일이 손꼽을 수 없지만 감히 우리네 머리로선 생각지 못할 일들이 이곳 저곳에서 발생하는가 하면 적은 생활비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주부들의 마음 또한 편할 리 없다. 길을 가면서도 버스 속에서도 어디에서나 머리 속에서는 주관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쉴새없이 계속되고 착오가 생겼을 때에는 애써 생각해 내려고...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하면서도 빈약한 식탁을 대하기가 쑥스러워 생선 한 토막이라도 올려 놓으면 어떤 풍성함보다도 마음은 호젓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끼를 넘긴다.

◇...각박한 세상일수록 사람들의 미소가 활력소가 되고 진짜같은 진짜 아닌 가짜들이 난무하는 요즘 진짜라고 하면 오히려 어색한 표정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루 일과로 온몸이 부서지고 결리고 머리는 어지럽고 오후가 될수록 기억력은 퇴락해지고 아랫목이 사랑스럽게 그리워질 때 덤마름이 또한 그리워진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고향이라도 찾아 해매이듯 따스한 덤마름이 아니더라도 마음은 포근히 감싸주는 사랑스런 음식이 있고 말쑥이 있으니 내게 불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 어려우면 어려운 생활에 만족(감사)하고 조금 풍성해지면 풍성함으로 내가 변해질까와 모두에게 취버리고 내 스스로 생활에 나를 적응시키며 나를 즐겁게 만들고 한없이 자연이 그리워질 때면 화원 앞을 왔다 갔다 몇번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만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 몇분 안남은 지갑을 털어 탐스럽게 된 국화 몇 송이를 사가지고 돌아오는 내 마음은 하늘위의, 애드벌룬처럼 부풀어 있고 코끝으로 스며드는 향기에서 주님의 섭리의 오만함을 느끼며 잠시라도 휴식을 가져본다. 꽃이 웃는다. 나도 웃는다.

〈영자〉

◇...교회로 발걸음을 향해 오던 토요일 오후였다. 거리의 청소부가 고르지 못한 길에서 한번만 덜렁 하면 반 이상은 쓸아갈 듯한 쓰레기로 가득 채운 리어카를 끌고 비탈진 언덕을 오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목인데도 누구 하나 눈물리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럿이서 함께 가던 신사들 중의 한사람이 선뜻 나서더니 그 더러운 리어카를 힘껏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 신사의 걸음은 말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안쓰럽게 쳐다보는 우리와는 달리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털며 여유있는 걸음걸이로 가 버렸다.

◇...조그만 한 행원지만 생각하게 하는게 있다. 성도인 우리는 언제까지 「보기에 좋았더라」가 「행하기에 좋았더라」로 바뀔 것인가. 〈지〉

연집하고 나서

*...올들어 해결된 듯한 교회 건축 부지에 관한 소식에 우리는 온통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졌다. 이제 우리가 오랜동안 열망하던 성전 건축의 처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보다 뜻깊은 건축에의 참여와 교회 건축의 기능면에서 우리의 이상을 생각하며 「교회와 성도」를 특징으로 엮었다. 차제에 온 교인이 어떻게 성전건축에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최경만씨의 「미래의 충현주교 발전을 위한 제언」이 나간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정확한 위치와 앞으로 방향 설정을 위하여 주일학교 발전을 위한 특별기획 연재이다. 계속 연재중 독자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있기를 바란다.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하면 열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소련의 교회 탄압과 교인들에 대한 감명 깊은 이야기를 소련인인 닷빛 클라센(D.Klassen)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분노와 연민과 함께 기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아무리 탄압을 하고 폐쇄를 한다 해도 마음 속에 타고 있는 성령의 불은 끌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형수〉

표지 설명

...더 이상 이상 태로 유지할 수가 없어 교회는 3월 첫주부터 4부에배를 드리게 되었다. 계속적으로 문제되어 오던 성전 건축의 문제가 급면들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 기쁜 준비를 하고 있다. 차고 넘치는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당을 지어도 차고 넘칠 것이다. 새로 짓는 교회당도 차고 넘칠 것을 성급하게 예견하며 4부에배의 모습을 담았다.

월간 「충현」 3월호 통권 제39호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송 순 일

주 간/정 관 일

편집국장/조 선 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7년 3월 27일 발행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 지난 3월 13일 4부예배 때는 소련에서 탈출하여 온 다빗 클라센(David Klasser) 목사의 간증 설교가 대예배실을 꽉 메운 가운데 있었다. 소련의 교회 현황에 대해 '우리의 궁금한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클라센 목사(사진)는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했다.



↑ 3월 14일에는 성경학원과 산업전도회 공동주관으로 기업인 수련회가 유년부실에서 있었는데 감사 김익영 장로의 강의를 듣고 나서 감사와 산업전도회원간의 질의응답시간도 가졌다



↑ 평신도선교사 박용삼 집사(가운데)는 지난 2월 20일 교우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서독으로 떠났다. 해외복음 선교회 위영환 회장과 몇 실행위원들과 같이 선 모습



↑ 유치부에서는 사도신경외우기대회를 반발대회로 진행하였는데 찬반이 선생님과 함께 나와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다



↑ 청년부에서는 2월 20일 설교발표회를 청년부실에서 가졌는데 연사 인정옥 회원이 설교발표를 하는 한 장면

일로암
못가에서



아 침 기 도

시인 김 남 조

목마른 긴 밤과
미명(未明)의 새벽길을 지나며
씩이 트는 씨앗에게 인사합니다
사랑이 눈물흐르게 하듯이
생명들도 그러하기에
일일이 인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제게 주실
허락이 남았다면
주님께 한 여자가 해드렸듯이
눈물과 향유(香油)와 미끈거리는 검은 모발(毛髮)로써
저도 한 사람의 발을
말없이 오래오래
뒹아 주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 한가지 소원으로
기도드립니다

□월간충현 3월호